

### 35. 요금 징수원에서 발생한 폐암

**성별** 여 **나이** 53세 **직종** 서비스업 **작업관련성** 낮음

**1. 개요:** 근로자 진OO은 OO공사 OO 외곽 순환도로 OO 영업소에 근무하던 중 2006. 6월 OO병원에 원발성 폐암-선암으로 진단 받았다.

**2. 작업내용 및 환경:** 근로자 진OO은 1998년 3월 25일 OO공사 OO 영업소에 요금 징수원으로 입사하여 2006년 6월 28일까지 OO 영업소에서 같은 일을 하였다. 주 6일 근무를 하다가 2006년 6월부터는 주 5일 근무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연장 근무를 신청하여 한 달에 쉬는 날이 거의 없는 때가 많았다.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들의 말에 의하면 외곽 순환도로는 항상 밀려있어서 하루 업무 중에 2,700대에서 많으면 3,200대를 받는다고 하였다. 승용차선은 4번~11번으로 매일 다른 부스로 옮겨서 일을 한다고 하였다. 일주일에 2회는 전용 화물 차 선 부스(1, 2, 3번)에서 일을 했으며 근무는 승용차선에 비해서 여유가 있었으나 매연이 심하고 차가 섰다가 가면 머리가 아팠다고 하였다. OO영업소 요금 징수업무 근로자는 각 부스 안의 개방된 창문 근처에서 근무하는데, 개방된 창문을 통해 외부로부터 차량 배기가스를 차단하기 위해 창문 상부 측면의 슬롯을 통해 공기를 제트 형태로 분출하는 에어커튼이 설치되어 있지만, 근로자는 그 바람으로 근로자 더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 자주 꺼놓았다고 하였다.

**3. 의학적 소견:** 정기 검진은 연 1회 시행하였으며 항상 정상으로 나오다가 2005년 5월에 폐에 이상이 있어 흉부 방사선 재검을 받았고 이후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. 2006년 5월 25일 다시 검진을 했을 때 폐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. 같은 해 6월 13일 CT 촬영 결과 폐암을 진단 받았다. 2006년 6월 19일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고 7월 3일 수술을 받고 7월 11일 퇴원하였다.

**4. 결론:** 근로자 진OO은

- ① 원발성 폐암(선암)으로 확진되었고,, 8년 1개월간 고속도로 요금 징수업무를 하면서,
- ②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, 디젤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,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,
- ③ 작업환경측정 결과 폐암을 유발할 정도의 노출수준이 아니었고 폐암 등의 고형암 생성 기간에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걸리는 데 비해 근로자 진광숙의 근무 기간은 8년으로 다소 짧으므로,

근로자 진OO의 원발성 폐암은 과거 8년간 1개월간 고속도로 상에서 종사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.